

사람의 디자인

June, 2016 | 김수지 기자

LIVING CAST TIME LINE

사람의 디자인

20세기 프랑스 모더니즘 디자인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와 건축가 겸 디자이너 피에르 잔느레의 마지막 작품인 '찬디가르 프로젝트'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가장 위대한 디자인 이야기.

기획 김수지 기자 사진 박나연
촬영협조 국제갤러리(www.kukje.org)

1951년 인도 정부에 의해 시작된 찬디가르 프로젝트는, 인도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낙후된 찬디가르를 진보적인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르 코르뷔지에와 피에르 잔느레는 국회의 사당과 의회, 사무국, 간디도서관 등 주요 행정 건물의 건축과 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등을 총괄하며 가난과 정치적 혼란으로 피폐해진 도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습하고 더운 인도의 기후를 고려해 건물과 가구는 통풍이 잘 되도록 디자인하고 현지에서 많이 나는 티크와 장미나무, 대나무 줄기 등 토속 재료를 이용해 X, U, Y 형상의 단순한 가구들을 만들었다. 두 사람이 떠난 후에도 대량생산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좌식 생활을 하는 인도의 하층 계급인을 위해서 가구는 모두 낮게 만들어졌다. 열정을 쏟아 완성한 두 거장의 마지막 프로젝트이자 인도의 위대한 유산인 찬디가르 프로젝트가 세계 최초로 한국을 찾았다. 견고하면서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구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관공서나 도서관에서 사용했던 것들로 목직의 감동을 준다.

